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승님, 인(仁)이란 무엇입니까?

1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네.

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인을 실천해야 합니까?

3

자네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게.

4

- ①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여 형이상학적 담론[淸談]을 즐긴다.
 ②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고 예(禮)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
 ③ 다른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선한 업(業)을 쌓는다.
 ④ 선악이나 미추(美醜)를 분별하지 않고 만물을 평등하게 대한다.
 ⑤ 후천(後天)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 준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이 각자에게 맡겨지며, 각자가 자신의 일에 충실할 때 국가는 하나가 된다. 정치 권력과 철학이 결합되지 않는 한, 즉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하지 않는 한 불행은 끝나지 않는다.

- ㄱ. 용기는 수호자가 갖추어야 할 욕구의 탁월함이다.
 ㄴ.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한 사람이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ㄷ. 국가의 각 계층이 제 할 일을 할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ㄹ. 생산자 계층 이외에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할 계층은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유용성으로서의 진리는 관념과 이론이 경험을 재조직화하는 데 기여함을 의미한다.
 ○ 정적인 성과나 결과보다 성장, 개선, 진보의 과정이 의미 있다. 목적이란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과정이다.

- ① 과학적 이론은 현실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이어야 한다.
 ② 오류 가능성이 있는 지식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③ 창조적 지성을 발휘하여 고정불변의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④ 유용성이 검증된 지식은 상황이 변해도 가치를 잃지 않는다.
 ⑤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에 부합하는 도덕규범만을 따라야 한다.

4.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입법부는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이지만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신탁된 권력이다. 따라서 입법부가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력은 여전히 시민에게 있다.

을: 폭력에 대한 자기방어의 권리를 포기하는 신의(信義) 계약이 폭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주권자가 누군가에게 죽음을 명령하거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금지한다면 그는 주권자에게 복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 보 기 >

- ㄱ. 갑: 입법부는 입법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권한이 없다.
 ㄴ. 갑: 공평한 재판관이 있어야만 법 위반 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
 ㄷ. 을: 주권자는 시민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ㄹ. 갑과 을: 시민은 국가의 최고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갖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만물의 근원인 성(性)은 마음의 이치[理]이며 정(情)은 마음의 작용이다. 성에는 불선이 없지만 성인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뉘는 것은 품부 받은 기(氣)의 맑고 흐림에 의해서이다.
 을: 마음의 본체는 하늘의 연못이니 만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만 사욕에 막히면 본체를 잃게 되므로 생각마다 양지를 발현하여[致良知] 본체가 회복되면 갖추지 않는 것이 없다.

(나)

- ① A: 마음에는 만물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져 있음을 간과한다.
 ② A: 지와 행은 본래 하나이며 선후의 구분이 없음을 간과한다.
 ③ A: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이 격물임을 간과한다.
 ④ B: 성은 마음의 본체이며 도덕적 판단의 근거임을 간과한다.
 ⑤ B: 사물마다 양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치지임을 간과한다.

6. 고대 서양 사사가 갑, 중세 서양 사사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의 좋음[善]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에 있다. 인간의 기능은 이성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며, 자신의 고유한 탁월성에 따라 수행될 때 완성된다.

을: 인간의 자연적 성향은 신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규정한 목적을 향하게 한다. 이러한 자연적 성향에는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에 대한 진리 탐구 등이 있다.

- ① 갑: 실천적 지혜는 모든 행위에서 중용을 발견하는 덕이다.
 ② 갑: 행복은 인간만의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된 품성 상태이다.
 ③ 을: 인간은 이성적 인식을 통해 신의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을: 인간과 동물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⑤ 갑과 을: 도덕적 덕을 실현하면 현세에서 지복을 누릴 수 있다.

7. 현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자신의 힘만으로 절망을 없애려 하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진다. 자신이 단독으로 신 앞에 있는 것을 의식할 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을: 인간은 실존 이후에 스스로가 구상하고 원하는 무엇이 다. 인간은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과 다른 무엇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제1 원칙이다.

— < 보 기 > —

- ㄱ. 갑: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인간의 유한성은 모두 극복된다.
 ㄴ. 을: 자신의 본질을 만들려면 자유 자체를 선택해야 한다.
 ㄷ. 을: 인간은 자신이 선택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ㄹ. 갑과 을: 참된 실존에 이르려면 주체적 결단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사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농부가 힘써야 할 세 가지가 있다. 때를 따라 밭을 갈고, 물을 대며, 씨앗을 심는 것이다. 씨앗이 땅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 뒤로는 스스로 자라고 성숙하며 열매를 맺는다. 수행자 또한 힘써야 할 세 가지가 있다. 계율[戒], 마음[意], 지혜[慧] 공부이다. 이 공부가 무르익으면, 애쓰지 않아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 ① 중도의 수행은 이론과 실천 두 측면을 병행해야 완성된다.
 ② 중생의 행동이 있으면 반드시 업이 생기고 과보가 따른다.
 ③ 최상의 지혜에 이르면 삶을 숙명으로 여기고 따르게 된다.
 ④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닫지 못해도 해탈에 이를 수 있다.
 ⑤ 연기에 의하면 동일한 행동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9.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근대 서양 사사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친애하는 ○○님께

도덕법칙이 인간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이유를 물었기에 답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감성계와 예지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성계의 일원으로서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예지계의 일원으로서 자연법칙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이성에만 근거한 도덕법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인식할 때는 자신을 예지계의 존재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를 지닌 존재로 인식할 때는 자신이 감성계에 속하면서 동시에 예지계의 도덕법칙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도덕법칙은 예지계의 '나'가 감성계의 '나'에게 내리는 무조건적 명령입니다.

- ① 도덕법칙의 준수는 경향성이 요청하는 인간의 의무이다.
 ② 도덕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부과되는 정언 명령이다.
 ③ 자신의 준칙이 항상 도덕법칙과 일치하는 존재만이 존엄하다.
 ④ 이성은 자연의 인과성과 무관하게 도덕법칙을 입법할 수 있다.
 ⑤ 도덕법칙은 자유가 존재하는 근거이고 자유는 도덕법칙을 인식하는 근거이다.

10. (가)의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들어갈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하늘과 사람의 구분에 밝은 사람을 지인(至人)이라고 한다. 하늘의 운행은 요임금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걸임금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는다. 사람이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별과 예의가 있기 때문이다. 을: 하늘이 하는 일을 알고 사람이 하는 일을 아는 사람은 지인이다. 지인은 자기 존재조차 잊는다[無己]. 요임금을 칭찬하고 걸임금을 비난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를 잊고 도(道)와 하나가 되는 것만 못하다.
(나)	

— < 보 기 > —

- ㄱ. A: 하늘은 도덕적 삶과 이상적 통치의 모범이다.
 ㄴ. B: 도를 따르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ㄷ. B: 예(禮)는 인위적으로 생겨난 사회 규범이다.
 ㄹ. C: 본성을 닦으면[性修] 덕을 회복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12]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둥근 그릇과 모난 그릇은 모양이 다르나 그 속의 물은 같듯이 기(氣)가 근본이 하나인 것은 이(理)의 통합[通] 때문이요, 이가 만 가지로 나뉘는 것은 기의 국한[局] 때문이다. 사람의 이가 사물의 이인 것은 이의 통합이고 사람의 성(性)이 사물의 성이 아닌 것은 기의 국한이다.
을: 둥근 그릇의 물이나 모난 그릇의 물이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니, 그 성은 같다. 그러나 사람의 성과 동물의 성은 같을 수 없다.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동물이 얻은 것은 기질(氣質)의 성뿐이며 그것이 곧 본연이다.

1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이의 바름과 치우침의 정도에 따라 기가 국한된다고 본다.
 - ② 을은 온갖 악을 행해도 마음의 기호는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사단을 하늘이 부여한 사덕의 근본으로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도의에 어긋난 욕구도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사단을 기질의 성에서 드러난 선한 감정으로 본다.

12.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단의 발함[發]도 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맹자가 가리킨 사단은 기에서 발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비록 기를 탄다고 할지라도, 맹자가 가리킨 사단은 기를 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이가 발하는 곳에 있다. 그래서 ‘인(仁)의 단(端)’, ‘의(義)의 단’이라고 말한 것이다.

- ① 기가 이를 주재하여 드러난 감정은 선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② 기가 발한 것이 절도에 맞지[中節] 않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이가 발하지 않으면 성은 감정으로 드러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사단은 천리에 따라 맑은 기가 곧바로 드러난 것임을 간과한다.
- ⑤ 칠정은 이와 기가 함께 있지만 주된 바[所主]가 기에 있음을 간과한다.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했을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이처럼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을: 개인이 분업에 예측된 상태가 사라지고, 노동이 생계 수단을 넘어 삶의 일차적 욕구가 되며,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과 함께 사회의 생산력이 증가하면,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게 된다.

- ① 갑: 개인의 이익 추구하고 분업은 국부를 증진할 수 있다.
- ② 갑: 국가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해야 한다.
- ③ 을: 국가는 노동자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존속되어야 한다.
- ④ 을: 공산 사회는 폭력 혁명이 아닌 점진적 개혁으로 실현된다.
- ⑤ 갑과 을: 노동 소외를 극복하려면 생산 수단을 공유해야 한다.

14.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무념(無念)의 돈법(頓法)을 깨친 이는 곧 부처의 지위에 이르게 된다. 법을 보되 법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곳에 고루 이르되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자기 성품이 늘 청정하므로 번뇌에 얽매이지도 물들지도 않는다.
을: 무념을 관(觀)하는 이는 곧 부처의 지혜로 향하게 된다. 돈종(頓宗)에 의지해 마음을 닦는 이는 곧 자기 마음의 한결같음과 고요함에 의거해 닦기 때문에 온갖 행(行)을 갖추어 닦지만 오직 무념을 으뜸으로 삼는다.

< 보 기 >

- ㄱ. 갑: 일체법(一切法)의 참모습이 공(空)임을 깨쳐야 한다.
- ㄴ. 갑: 진리는 문자 없이 전할 수 없으므로 돈오가 필요하다.
- ㄷ. 을: 자신의 본래 마음을 직관해도 번뇌가 존재할 수 있다.
- ㄹ. 갑과 을: 무명(無明)에 빠진 중생도 부처의 성품이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사려 깊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삶 없이는 쾌락의 삶도 있을 수 없고, 쾌락의 삶 없이는 사려 깊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삶도 있을 수 없다. 을: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인 악을 행할 원인을 갖지 않으며, 만물은 이 이성에 의해 생겨난다. 따라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평온함을 가져야 한다.
(나)	

< 보 기 >

- ㄱ. A: 쾌락을 가져오지 않는 덕은 무가치한가?
- ㄴ. B: 이성적 숙고에 따른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가?
- ㄷ. B: 쾌락은 본래 좋은 것이며 무한히 증대될 수 있는가?
- ㄹ. C: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6.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성인(聖人)이 무위(無爲)하면 백성은 저절로 변화되고, 고요하면 백성은 저절로 바르게 되며, 무욕(無欲)하면 백성은 저절로 순박하게 된다. 나라를 바른 도로써 다스리고 무사(無事)하면 천하를 얻게 된다.

을: 하늘의 뜻을 따르려면 천하 사람을 두루 사랑[兼愛]해야 한다. 하늘이 천하 사람을 두루 사랑함은 두루 먹여 주는 데서 알 수 있다. 하늘의 뜻을 따라 두루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交利] 하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찬양받는다.

- ① 갑: 통치자가 도와 덕에 따르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 ② 갑: 통치자가 제정한 예법은 사회 혼란의 원인이 아니다.
- ③ 을: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면 백성의 삶이 평안할 수 없다.
- ④ 을: 자국 백성의 이익을 위한 선제공격은 의로움에 부합한다.
- ⑤ 갑과 을: 부국강병을 이루어 백성의 생업을 보장해야 한다.

17.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수동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이 감정을 참되게 인식하는 것이다. 수동 감정은 참되게 인식될 때 수동 감정이기를 멈추고 능동 감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을: 이성 혼자서는 의지의 그 어떤 활동에도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이성은 의지를 이끄는 과정에서 감정과 대립할 수 없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 < 보 기 > —

ㄱ. 갑: 수동 감정은 능동 감정과 달리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
 ㄴ. 갑: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은 참된 인식에서 생기는 감정이다.
 ㄷ. 을: 이성은 자연에 실재하는 인과 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ㄹ. 갑과 을: 도덕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근거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근대 한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사람 섬기기를 한울 섬기듯 해야 한다. 스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라는 참된 뜻 또한 바로 이것이다.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도(道)에서 멀어지게 된다.

을: 우리가 하늘을 섬김은 도리를 위한 것이지만, 서양인이 하늘을 섬김은 물질과 욕망을 위한 것일 뿐이다. 기(氣)가 주가 되어 이(理)가 부러지면 악하지 않음이 없다. 서양인과 강화하면 모두 금수가 될 것이다.

- ① 갑: 한울의 마음을 지키려면 효제를 실천해야 한다.
- ② 갑: 모든 종교를 수용하여 만민의 평등을 구현해야 한다.
- ③ 을: 천리를 바탕으로 인륜과 사회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 ④ 을: 서양 문물을 배격하고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도에 따라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히 해야 한다.

19. 다음은 사회사상이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다른 사람이 나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 인하여 내 자유의 영역이 축소될 때 나는 노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실질적 간섭이 없더라도 주인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유를 노예 상태와 대조하는 것은 자유가 불간섭이 아니라 비지배에 있다는 명확한 근거입니다.



갑



을

- ① 갑: 선한 의도에 따른 간섭은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 ② 갑: ‘~을 향한 자유’를 통해 국가의 개입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③ 을: 법이 존재해도 비지배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 ④ 을: 지배가 없는 간섭보다 간섭이 없는 지배를 추구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시민의 정치 참여는 진정한 자유의 실현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20.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쾌락을 누리고 고통을 피하는 것은 입법자가 중시하는 목적이다. 입법자는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측정할 때 강도, 지속성 등 일곱 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한다. 감각적 쾌락보다 지성, 도덕 감정 등에서 얻는 쾌락이 더 가치 있다.

— < 보 기 > —

ㄱ. 쾌락의 양이 늘어날수록 쾌락의 질은 높아진다.
 ㄴ. 공리의 원리는 정부 정책의 수립에 적용되어야 한다.
 ㄷ. 행복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쾌락의 향유를 의미한다.
 ㄹ. 이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